≫ 2016년 기획연구과제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김수한 · 유다형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김수한**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 구 원	**유다형**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Ⅰ. 연구개요

❍ 이 글의 목적은 근대 개항 이후 인천에 정착하여 살아온 중국 해외이주민과 그 후손인 화교들의 역사문화 자산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음

❍ 청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집거하며 생활해 온 화교들이 130여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해 온 역사문화 자산은 고유한 특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명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갖추고 있음

❍ 인천 화교사회는 차이나타운 개발 과정에서 주목을 받아 온 유적·건축물 등 일부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고유의 무형유산 및 근현대 유물·기록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 등에 집중되었던 인천화교와 차이나타운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발굴/보존/확산을 포함한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① 인천화교 사회 현황 정리

②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현황 조사

- 인천차이나타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건축물과 유적 조사

- 인천화교 무형자산 및 유물·기록자산 조사

③ 인천 화교 자산 활용 관련 기본 방향과 과제 제시

2.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인천화교의 가치와 활용

- ❍ 근대 개항과 함께 인천에 정착하여 살아온 중국 해외이주민과 그 후손인 화교들은 혈연적·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인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 옴
- ❍ 우리와는 다른 이문화(異文化)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화교들은 다문화의 담지체이자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상징적 집단임
- ❍ 더불어 화교사회의 형성과정이 인천의 근대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역사성(또는 정통성)을 공유하고 있음
- ❍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 유적지로 화교집거지인 차이나타운을 꼽고 있음
- ❍ 인천화교가 갖는 특수성, 역사성은 200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인천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근간이 됨
- ❍ 인천시와 중구청 등은 인천화교/화교집거지가 갖는 가치를 활용하여 장소매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용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적극 활용
  -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인천차이나타운 개발은 주로 인위적 중국풍 경관 조성에 주안점을 둔 공공부문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쇠락했던 화교집거지는 빠르게 관광명소화 되었음
- ❍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교의 역사와 문화를 진정성 있게 구현하지 못하였으며 상업화된 먹거리 위주의 관광명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인천 개항장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방문객들이 주로 '차이나타운=중국음식점타운'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항 역사·문화 유적지로서 인천차이나타운의 매력과 진정성의 구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과정에서 물리적 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에 집중되었던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그동안 주로 화교 유적·건축물 등의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인천 화교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 및 근현대 유물·기록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천화교 역사문화자산 현황 및 시사점

❍ 근현대에 걸쳐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천화교 고유의 정치·경제·사회 생활양식이 반영된 역사문화 자산이 ▲유적·건조 ▲무형유산 ▲유물 ▲기록물의 형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 인천 화교 역사문화 자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Ⅲ장 참고

❍ 청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집거하며 생활해 온 화교들이 130여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해 온 역사문화 자산은 고유한 특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명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갖추고 있음

❍ 인천화교의 역사성과 고유성에 바탕을 둔 실용적 활용이 본연의 역사성과 고유성의 화교 가치를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인천화교 가치의 선순환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과정에서 물리적 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 등에 집중되었던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발굴/보존·유지/확산·전승을 포함한 다각적 활용을 지원해야 함

3.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활용 방안 제안

❑ 유적·건조 자산 활용

❍ 근현대 건축 자산은 기본적으로 원형 보존 원칙에 따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도 일반 시민들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공간으로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음

❍ 유적·건조 자산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실용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인천차이나타운의 유적·건조 자산의 무분별한 상업적 개조와 활용을 피하면서, 다른 유·무형 자산과의 종합적 연계를 통한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 인천차이나타운에 밀집해 있는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을 교육과 문화의 구심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
- 그 일환으로 ① 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교 역사·문화 안내를 제안함

❑ 무형자산 활용

❍ 인천화교 사회와 각 화교 가정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일련의 화교 무형자산의 경우,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변형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개인 또는 가정에서 계승되어지고 화교 무형자산을 기록하고 이를 공적으로 보존·유지하여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화교 유물·기록에 대한 보다 체계적 수집과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③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천화교역사관의 시립박물관 직영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대를 거쳐 오면서 변형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화교 무형유산의 발굴과 유지·발전을 위한 ④ 화교커뮤니티의 주체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⑤ 화교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을 위한 국내외 협력기제를 마련하는 한편, 인천 화교-산둥 간 네트워크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 함

차례

Ⅰ. 연구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주요 개념 및 연구 범위 ····· 1
3.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 2

Ⅱ. 인천 화교 및 화교사회 기본 현황 ····· 4
1. 인천화교의 개념 ····· 4
2.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 및 현황 ····· 6
3. 종합 및 시사점 ····· 18

Ⅲ. 인천 화교 역사·문화 자산 현황 조사 ····· 21
1. 인천유적·건조 자산 ····· 21
2. 인천 화교 무형자산 ····· 32
3. 유물 및 기록 자산 ····· 42
4. 종합 및 시사점 ····· 43

Ⅳ. 인천 화교 역사·문화 자산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 45
1. 기본 방향 ····· 45
2. 정책 제언 ····· 46

[참고문헌] ····· 53

표차례

〈표 1〉 인천 차이나타운 인프라 개발 사업 (2002-2007) ····· 9
〈표 2〉 인천 화교사회 형성 관련 주요 사건(1902-2015) ····· 12
〈표 3〉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전국 분포 수/2015년 ····· 14
〈표 4〉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인천 분포 수/2015년 ····· 14
〈표 5〉 인천지역 화교단체 변천 과정 ····· 15
〈표 6〉 유적 건조물 문화재 유형 분류 ····· 21
〈표 7〉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구조 ····· 23
〈표 8〉 중화루(原대불호텔) 건축구조 ····· 24
〈표 9〉 공화춘 건축구조 ····· 26
〈표 10〉 선린동 1-5번지 점포주택 구조 ····· 26
〈표 11〉 선린동 25번지 점포주택 구조 ····· 27
〈표 12〉 선린동 28번지 점포주택 구조 ····· 27
〈표 13〉 선린동 29번지 점포주택 구조 ····· 28
〈표 14〉 선린동 32번지 점포주택 구조 ····· 28
〈표 15〉 청국영사관 구조 ····· 29
〈표 16〉 중산학교 구조 ····· 30
〈표 17〉 의선당 구조 ····· 31
〈표 18〉 무형문화재 유형 분류 ····· 32

그림차례

〈그림 1〉 연구 수행체계 ····· 3
〈그림 2〉 인천 차이나타운 특화거리사업 관련 인프라 조성 사례 ····· 10
〈그림 3〉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 관련 역사문화 유물 전시관 조성 사례 ····· 11
〈그림 4〉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전국 분포 비중 ····· 14
〈그림 5〉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인천 분포 비중 ····· 14
〈그림 6〉 인천화교학교 연간 주요 행사(2011년) ····· 17
〈그림 7〉 인천 도시이미지 보유자원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고유 역사·문화 유적지 ····· 19
〈그림 8〉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 분포 ····· 22
〈그림 9〉 1950년대 인천화교 전통 공연 ····· 33
〈그림 10〉 2011년 인천화교 전통 공연 ····· 34
〈그림 11〉 의선당 본관 신단 배치 및 각 신상 ····· 35
〈그림 12〉 소년 조왕신 제사 ····· 37
〈그림 13〉 춘절 화교 가정 제례 및 의선당 행사 ····· 38
〈그림 14〉 원소절, 단오, 중추절 화교 전통 음식, 풍속, 제례 ····· 39
〈그림 15〉 화교 결혼식 관습 ····· 40
〈그림 16〉 화교 성묘 관습 ····· 41
〈그림 17〉 인천박물관 소장 화교 유물·기록유산 및 기획전시전 전시물 ····· 42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이 글의 목적은 근대 개항 이후 인천에 정착하여 살아온 중국 해외이주민과 그 후손인 화교들의 역사문화 자산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음
- ❍ 청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집거하며 생활해 온 화교들이 130여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해 온 역사문화 자산은 고유한 특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명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갖추고 있음
-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 과정에서 주로 화교 유적·건축물 등 일부 유형자산만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인천 화교사회는 고유한 무형유산 및 근현대 유물·기록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 물리적 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 등에 집중되었던 인천화교와 차이나타운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발굴/보존/확산을 포함한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개념 및 연구 범위

❑ 주요 개념

- ❍ 이 보고서에서는 근대 조선 개항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중국 대륙으로부터 이주, 인천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중국인들과 그 후손을 인천화교로 규정함
- ❍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이란 근대 및 현대에 걸쳐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천화교 고유의 정치·경제·사회 생활양식이 반영된 유산으로 ▲유적·건조 ▲무형유산 ▲유물 ▲기록물 등을 포함함

- 근대시기 시작을 근대적인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가 진척된 영조 이래의 조선 후기가 아닌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개항 이후로 간주함

❑ 내용적 범위 및 연구 초점

❍ 인천화교의 개념 및 화교사회 형성, 화교사회단체 현황 정리

-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인천화교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인천화교 커뮤니티 현황을 정리함
- 인천 화교사회 형성 과정 속에서 배태된 특성이 갖는 의미를 검토

❍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현황 조사

- 인천차이나타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건축물과 유적 조사
- 인천화교 무형자산 및 유물·기록자산 조사

❍ 인천 화교 자산의 활용을 위한 방안 제시

3.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1)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인천화교 개념 및 형성과 관련한 자료집 등 선행연구 참고

❍ 인천화교 역사·문화자산 현황 조사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활용

- 인천광역시,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역사자료관, 인천문화재단, 인천시 중구청 등 지역 공공기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인천화교와 차이나타운에 대한 자료집 활용
- 인천대 중국학술원,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발간한 화교생애와 관련 구술·채록집과 한국화교 자서전 활용

❑ 현장답사

❍ 2016년 3회에 걸쳐 인천차이나타운 방문을 통해 유적·건조물 현황을 조사하고 차이나타운 화교역사관 전시물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함

❍ 2016년 8월 인천시립박물관을 방문하여 화교 문물 소장 현황을 조사함

❑ 전문가 인터뷰

❍ 학계 중국화교 전문가 면담을 통해 인천화교 현황 및 조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존 화교연구 성과자료 정보를 취득함(2016.02.05)

❍ 지역문화계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교커뮤니티 현황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2016.08.01.)

❑ 빅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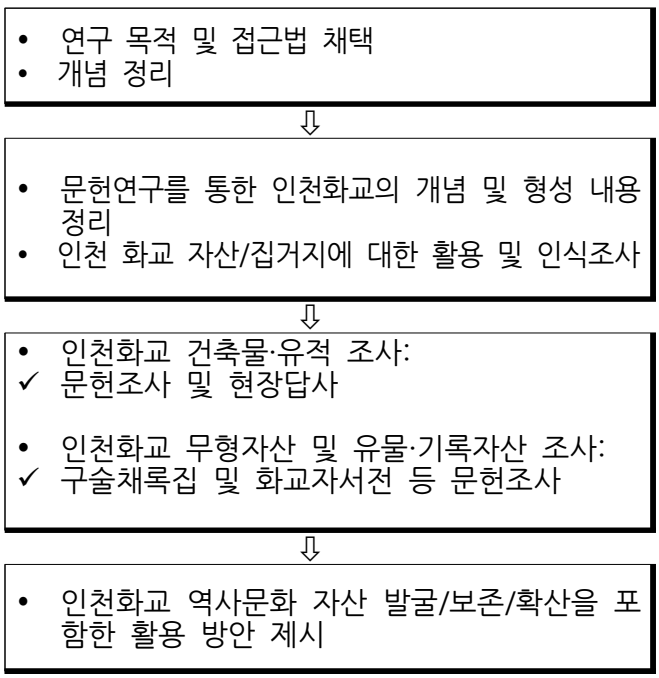
❍ 차이나타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함

- social metrics(http://insight.some.co.kr/campaign.html) 활용, 2016년 3월20부터 4월 20일의 1달 간 <차이나타운> 연관 장소, 속성, 상품 키워드 내용 수집·분석

2) 연구체계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수행체계를 통하여 진행되었음

<그림 1> 연구 수행체계



Ⅱ 인천 화교 및 화교사회 기본 현황

1. 인천화교의 개념

❑ 국적유지 여부에 따른 구분 – 화교, 화인, 화예

❍ 중국에서는 해외에 정주하는 중국 해외이주자들을 국적유지 여부에 따라 화교(華僑), 화인(華人) 그리고 화예(華裔)로 구분

- 화교란 일반적으로 중화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소지한 채 외국에 정주하고 있는 자를 가리킴
- 화교 가운데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은 화인으로 구분
- 중국혈통을 갖지만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거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화예(華裔)라 칭함

❍ 그러나 이 같은 국적유지 여부에 따른 중국 해외이주자 개념은 인천을 비롯한 한국의 화교를 규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 형성 기원에 따른 인천화교 규정

❍ 근대 조선 개항이후 부터 냉전시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단절 이전에 중국 대륙으로부터 한반도에 이주한 중국인과 그 후손들을 통상적으로 한국화교, 또는 줄여서 한화(韓華)로 일컬음

❍ 한국화교들은 조상의 고향이 중국대륙이지만, 타이완에 정부를 둔 중화민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인식해 옴[1)]

- 한국화교의 조국 인식은 동아시아 냉전체제 하에서 반공진영인 한국, 중화민국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틈바구니에 끼어있게 된 결과로부터 기인함[2)]

---

1) 한국화교는 99%가 중국대륙 출신이며, 그 가운데 90% 이상은 산둥성 출신임. 산둥성 출신 화교들의 한국 이주와 정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옥련(2008:71-100)참고.

2) 한국화교는 냉전시기 한국의 내셔널리즘, 중화민국의 화교 정책 그리고 양국 국가관계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출신지인 중국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을 타자로 인식하고 오로지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국화교의 조국인식에 대한 역

- 한국전쟁 후인 1954년 당시 중화민국 총영사관에서 화교거주허가증(華僑居住許可證)을 발급하게 되면서부터 남한 화교들은 중화민국 국민이 됨[3)]

- 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귀화 신청을 하지 않은 중국 출신의 이주자와 그 후손에게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아 중화민국의 국적을 유지해 옴

❍ 현재 한국화교는 귀화, 해외이주, 국제결혼 등으로 국적만으로 그 정체성을 가늠하기에는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해지고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도 매우 다양해짐[4)]

- 한국화교는 초창기 1세대와 2대 조부의 시대를 지나 3·4세대 심지어는 5대로 이어지고 있음[5)]

❍ 따라서 국적만으로 한국화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1992년 한국이 타이완에 정부를 둔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게 되면서 국적 유지 여부에 따른 화교 규정은 한계에 다다름

- 1992년 이후 대륙으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하여 일정기간 정주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를 신화교로, 그리고 기존 중화민국 국적 한국화교를 구화교라 구분하기도 함[6)]

❍ 이 보고서에서는 국적보다는 형성 기원에 기초하여 한국화교를 규정 함

❍ 즉, 근대 조선 개항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중국 대륙으로부터 이주,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중국인들과 그 후손을 한국화교로 칭하며, 이 가운데 인천 지역에서 삶을 영위한 한국화교를 인천화교로 규정함

사적 고찰은 왕언메이(2013)을 참고.

3) 박상순(2001:9-19), 이창호(2011:52)에서 재인용

4) 인천 화교사회의 유력인사 및 그 가족의 생애를 구술 채록하고 있는 손덕준·송승석(2012:245-281)에서는 국적 및 정체성에 대한 화교 세대별 인식을 기록하고 있음

5)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화교가정에 한국인 엄마가 70%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5세대들은 자신들을 6.25세대라고 부르기도 함. 즉, 1세대 중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는 50%, 2세대는 25%, 3세대는 12.5%, 4세대 부모로부터 출생한 5세대 자녀는 중국의 피가 6.25%만 섞여 있다는 의미임. (국립민속박물관2012:14)

6) 신구화교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로는 정회옥 외(2015)를 참고.

2.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 및 현황

1)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정

❍ 19세기 인천의 청국 조계지를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디딘 화교들은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관련 국내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쇠퇴와 부흥의 과정을 겪으며 인천화교 사회를 형성해 옴

❍ 인천화교 사회의 형성과정을 ▲정착기▲번성기▲쇠퇴기▲부흥기로 나누어 정리함[7)]

❑ 정착기

❍ 1882년 임오군란 시기 조선에 파견된 청나라 군대의 군용품 조달을 위해 중국 상인 40여명이 한반도로 들어 옴

❍ 그 해 8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면서 중국 상인들은 조선 정부와 민간인을 상대로 상업을 할 수 있게 됨. 뒤이어 많은 중국 상인들이 서울과 각 개항장에 몰려옴

- 1883년 말 서울과 각 개항장에서 개업한 청나라 상인은 210명 정도였고, 이듬해에는 서울에 353명, 인천에 235명으로 급증

❍ 1884년 체결된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에 따라 인천에 청국조계(租界)를 형성

- 청국조계로 설정된 지역은 약 5,000여 평의 넓이로 현 선린동 일대 구릉지역임
- 조계지 내에서 치외법권, 무역활동, 부동산의 소유가 인정됨
- 청국영사관이 소재해 있어 줄여서 청관(淸館)으로 불림

❍ 이후 청일전쟁 전후 상황에 따라 인천 화교수의 증감이 있었으나 1897년 1,331명으로 늘어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1898년 의화단운동으로 중국 산둥성 일대가 혼란스러워지자 많은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피난을 와 화교규모가 크게 증가, 인천이 점차 화교들의 정착지가 됨
- 인천의 화교는 1900년 2,274명이었으며, 일제강점 직전 2,886명의 화교가 조계를 중심으로 거주

---

7) 인천화교와 차이나타운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이현식(2001:10-13),이덕훈 (2004:265-275), 이옥련(2013:40-50)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 번성기

❍ 개항과 정착기를 거치면서 청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화교집거지, 즉 인천 차이나타운이 형성됨

- 1893년 중국 사찰인 의선당이 건립되고 1902년 인천화교소학교가 개교
- 차이나타운에는 1912년 공화춘, 1918년 중화루가 개업하는 등 화교들의 상업 및 요식업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됨

❍ 1913년 청국조계가 폐지되었으나 조계지내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되어 차이나타운은 화교들의 집단 거주지로서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됨

❍ 1920~30년대 중국의 내전, 국제정세의 혼란, 국내 노동수요의 확대 등으로 중국인들의 입국 숫자가 늘어나, 1930년 인천화교는 2,427명에 이름

❍ 화교들은 잡화점, 비단가게, 양장점, 이발소,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점차 그 활동 범위를 확대

❍ 화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인들과의 충돌도 많아짐.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달랐고, 일제의 이간책으로 여러 소요들이 발생

- 1931년 중국 지린성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충돌한 완바오산(萬寶山) 사건이 전해지면서 인천, 서울, 평양 등에서 화교에 대한 배척운동과 화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단 폭력 사태가 발생
- 완바오 사건으로 한국화교 사망자 142명, 실종자 91명, 중상자 546명, 각 지역 영사관에 수용되었던 화교 이재민이 16,800여명에 달했음[8)]

❍ 해방이후 대중국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총 무역량의 98%가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무렵에 인천화교들은 활발한 대외무역과 경제 활동을 펼침

- 인천화교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식료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전국 화상간 네트워크로 사업을 확대
- 해방이후에도 이어졌던 화교 사회의 호황은 동아시아 냉전의 도래와 함께 점차 막을 내림

8) 화교들에 대한 대표적인 배화(排華)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완바오산 사건의 배경 및 이에 따른 한국화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공격과 대응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유광 저, 이용재 역(2012:185-202) 참고,

❑ 쇠퇴기

❍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집단거주지를 유지했던 인천 화교사회는 냉전시대의 개막 등 국제정세는 물론 화교경제를 제약하는 일련의 국내 정책의 영향으로 쇠퇴하기 시작함

❍ 1949년 중국대륙에 사회주의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 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대륙으로부터의 새로운 인구유입이 중단됨

❍ 중국과의 교역 중단과 이어 창고봉쇄령과 외화사용 규제로 화교경제는 큰 타격을 입음

❍ 1961년 단행된 <외국인토지규제법>에 의해 인천 및 인근 농촌지역에서 상품작물 재배 등 농업에 종사했던 화교가 토지를 잃고 도시로 진출로 진출하면서 인천 화교인구가 급증[9)]

- 1960년 1,973명이던 인천화교는 1962년 3,627명으로 늘어남
- 농사를 짓던 화교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중국요리집을 개업하는 등 화교들의 경제활동이 요식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함

❍ 이후 화교들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한국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화교가 늘어났으며, 1970년 32,989명에 달했던 인천 화교의 수가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됨[10)]

- 한국에서는 영주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화교들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의 규제를 받음. 거주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화교들은 F-2비자가 주어졌고 비자가 만료되는 2년마다 화교들은 체류연장 허가가 필요
-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화교들은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임직원이 될 수 없었으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의료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 어려웠음
- 화교들은 은행계좌는 만들 수 있었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각종 생활상의 규제와 차별이 존재했음

9) 당시 정책에 의한 화교의 현황에 대해서는 박경태(2008:157-162)참고
10) 화교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장수현(2002:248-250)참고.

❑ 부흥기

- ❍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던 인천 화교사회와 화교 집거지인 차이나타운은 1990년대 들어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됨
- ❍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 1997년 IMF사태 극복을 위한 외국자본투자 유인 정책과 맞물려 화교의 경제활동을 제약했던 법제가 개선되고, 인천 차이나타운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됨
  - 1998년 외국인토지 소유제한이 철폐되고 2000년 영주권제도가 도입됨
  - 2004년 영주권자의 참정권제도가 개혁되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화교 첫 투표가 시작됨
- ❍ 2000년 차이나타운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다음 해 월미관광특구 지정으로 차이나타운 개발이 본격화됨
- ❍ 2007년 차이나타운지역이 특화발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대대적인 중국풍 경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됨[11)]

<표 1> 인천 차이나타운 인프라 개발 사업 (2002-2007)

연도	추진 내용	소요예산(천원)
2002	북성동주민센터 중국풍 리모델링	240,000
2005	한중문화원 건립	8,400,000
2005	삼국지벽화거리	500,000
2007	차이나타운 도로기반시설 조성	3,000,000
2007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건립	2,900,000
2007	중저가상품거리조성	1,690,000
2007	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 조성	240,000
2007	중국건축물 리모델링	380,000
2007	중국풍 정원 한중원 조성	1,080,000
2007	제1패루(牌樓) 설치	1,050,000

자료 : 인천 중구청 <인천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사업> 정리

11) 보다 자세한 차이나타운 경관조성 및 인프라 사업 내용은 김수한(2009:86-92)참고

❍ 관련 사업을 통해 차이나타운 내에 중국풍 공원, 문화시설 등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근의 월미도, 연안부두, 자유공원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그림 2〉 인천 차이나타운 특화거리사업 관련 인프라 조성 사례

<table>
<tr><td></td><td></td><td></td></tr>
<tr><td>북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td><td>한중문화원</td><td>삼국지 벽화</td></tr>
<tr><td></td><td></td><td></td></tr>
<tr><td>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td><td>한중원</td><td>패루</td></tr>
<tr><td></td><td></td><td></td></tr>
<tr><td>중국풍 가로 정비</td><td>중국풍 상가 정비</td><td>짜장면 포토존</td></tr>
</table>

자료: 현지 촬영 (2009.9)

❍ 인천시 중구청에서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짜장면박물관과 인천화교역사관을 개관하는 등, 화교 관련 역사문화 유물 전시관을 조성하였음

- 차이나타운의 유명 중국음식점이었던 공화춘(共和春)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2년 짜장면을 테마로 한 짜장면박물관을 개관
- 2015년 한중문화관의 별관을 신축하여 인천화교역사관 개관하고 인천화교역사설명 안내 게시물과 관련 유물 등을 전시[12)]

12) 화교역사관 개관에 즈음하여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인천 화교사회 관련 실물·문헌·사진 및 민속자료 등 유물을 구입하였음. 관련 내용은 2015년 한중문화관(화교역사관) 유물 구입 공고문 참고 (http://www.hanjung.g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 검색일: 2016-10-10)

〈그림 3〉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 관련 역사문화 유물 전시관 조성 사례



자료: 짜장면박물관 홈페이지(http://www.icjgss.or.kr/jajangmyeon/검색일:2016-10-04) 및 현장촬영(2016-01-29)

❍ 이 같은 공공 주도의 지역특화 사업에 힘입어 쇠퇴했던 차이나타운은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했으며, 중국음식점을 위주로 한 화교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음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인천차이나타운 방문객은 2013년 2,699,000명에서 2014년 3,038,000명, 그리고 2015년 3,420,000명으로 증가함. 이에 따라 차이나타운의 매출액은 2013년 252억 원에서 2014년 620억 원으로 늘어남[13)]

-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추진 전, 지역에서 운영되던 중국 식당은 대청반점과 풍미 등, 단 2곳뿐이었지만, 2000년 인천차이나타운 상점은 5개의 중국음

13)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참고(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4308906&tblKey=GMN: 검색일 2016-10-11)

식점을 포함 44개로 늘어났음. 2014년에는 중국음식점은 28개를 포함 전체 상점이 72개로 증가함[14)]

<표 2> 인천 화교사회 형성 관련 주요 사건(1882-2015)

년도	내용
1882년	임오군란 시 청군 보급품을 위해 40여 멍의 입국, 조선-청 무역협정체결
1883년	인천개항
1884년	인천구화상지계장정/청국조계지 설정/청국영사관 건립
1893년	의선당 건립
1894년	청일전쟁
1899년	경인선 개통
1900년	의화단 운동에 따른 산둥선 주민 한반도로 대거 이주
1902년	4월 인천화교소학교 개교
1910년	일본 강점통치 시작
1911년	신해혁명
1912년	중화민국 건국 / 공화춘 개업
1913년	인천, 부산, 원산의 중화민국 조계 폐지
1917년	인천중화기독교회 건립
1918년	중화루 개업
1931년	만보산 사건 발발
1934년	인천중산중학교 개교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민 규제 정책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및 장제스 중화민국 타이완으로 패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1957년	인천화교학교. 중등부 신설
1961년	외국인 토지소유에 관한 법령발표
1962년	제2차 화폐 개혁
1964년	인천화교학교 고등부 신설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1998년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해제
2000년	차이나타운 활성화 계획 수립
2001년	월미관광특구 지정
2002년	화교의 영주권 인정
2005년	한중문화관 개관
2006년	5·31 지방선거 화교 첫 투표 / 차이나타운 지역 특화발전 특구 지정
2012년	짜장면 박물관 개관
2015년	인천화교역사관 개관

자료 : 본문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

14) 인천차이나타운 상가 현황에 대한 내용은 권기영 이정희 편(2015:232-234) 및 손덕준·송승석(2012:115)등 참고

2) 인천 화교사회 기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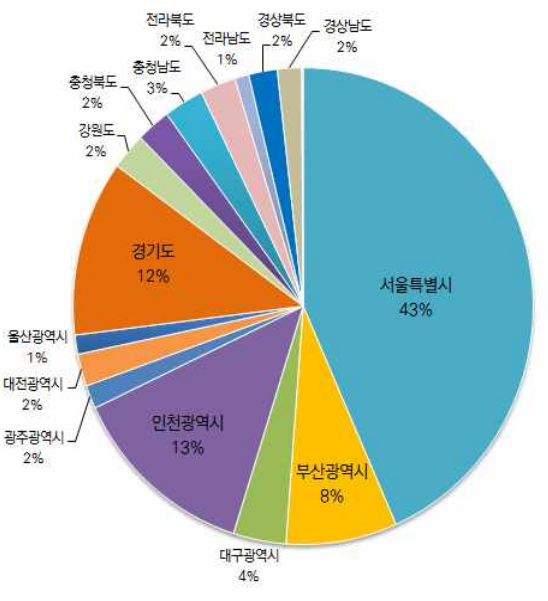
❑ 전국/인천 화교 인구 규모 및 분포

- ❍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화교의 국적과 정체성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화교 인구 규모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어려움
- ❍ 주한타이완대표처에서는 중화민국 국적보유 영주권자에 한정하여 한국화교를 약23,000명으로 집계하고 있음[15)]
  - 1936년 50,000여명에 달했던 한국화교는 한국전쟁을 거쳐 1954년 22,000여명, 1972년 32,989명으로 추산
  - 그 가운데 원적이 산둥인 화교를 전체의 90%, 허베이 및 동북지역 원적자를 7%로 보고 있음
- ❍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해 있는 타이완 국적의 등록 외국인수는 2015년 기준 20,138명임
- ❍ 그 가운데 서울에 전체의 43.5%인 8,758명이, 인천에 13.1%는 2,643명, 경기도에 12%인 2,411명이 거주하고 있음
- ❍ 2015년 기준 인천시 거주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2,643명 가운데 차이나타운이 소재한 중구에 41.5%인 1,096명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 인천시 남구에 23.9%인 631명, 부평구에 9.5%인 250명이 거주하고 있음
- ❍ 한편 인천지역 화교 1인당 월 1,000원 가량의 일반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인천화교협회에서는 회비징수 현황을 고려하여, 2012년 기준 인천에 약 3,800여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함[16)]

15) 한국화교 인구수는 주한타이완대표처 홈페이지 참고.
(http://web.roc-taiwan.org/kr/post/98.html 검색일: 2016-08-02)
16) 관련 내용은 손덕준·송승석(2012:192) 참고

〈표 3〉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전국 분포 수/2015년 〈그림 4〉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전국 분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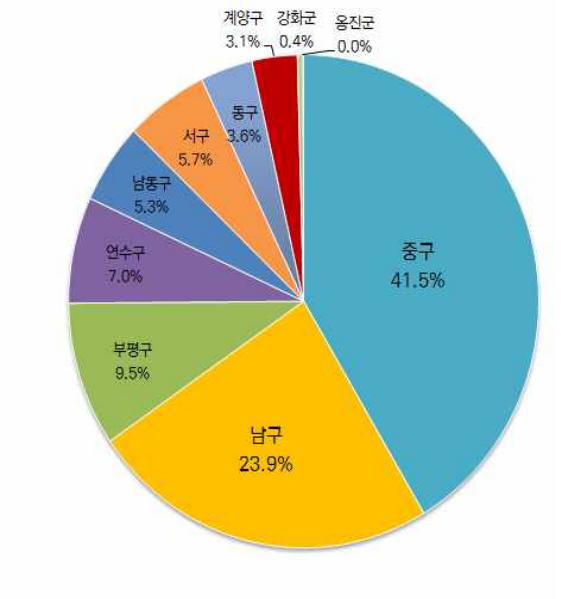
지역	인구수 (명)	비중(%)
서울특별시	8,753	43.5
부산광역시	1,565	7.8
대구광역시	753	3.7
인천광역시	2,643	13.1
광주광역시	323	1.6
대전광역시	436	2.2
울산광역시	252	1.3
경기도	2,411	12.0
강원도	504	2.5
충청북도	489	2.4
충청남도	555	2.8
전라북도	495	2.5
전라남도	197	1.0
경상북도	395	2.0
경상남도	341	1.7
세종시	26	0.1
합계	20,138	100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정리

〈표 4〉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인천 분포 수/2015년 〈그림 5〉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인천 분포 비중

지역	인구수(명)	비중(%)
중구	1,096	41.5
남구	631	23.9
부평구	250	9.5
연수구	186	7
남동구	141	5.3
서구	150	5.7
동구	96	3.6
계양구	81	3.1
강화군	11	0.4
옹진군	1	0.03
합계	2,643	100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정리

❑ 인천 화교 사회단체

❍ 개항이후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유지 과정 속에서 인천화교협회와 화교학교가 화교 공동체 유지와 계승과정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

- 현재 한국 전국 각지에 40여개의 지역 화교협회가 있으며, 4개의 화교중학 및 10여개의 화교 초등학교가 있음

〈인천화교협회〉

❍ 인천화교 커뮤니티의 대표적 민간사회조직으로 인천화교협회를 들 수 있음

❍ 인천에 화교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결성된 동향회 등의 자치단체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화교협회로 단일화됨

〈표 5〉 인천지역 화교단체 변천 과정

명칭	연도
중화회관(中華會館)	1887~미상
인천중화상무총회(仁川中華商務總會)	1913~미상
인천화상상회(仁川華商商會)	1929~미상
인천중화상회(仁川中華商會)	1946~1947
남한화교자치구공소(南韓華僑自治區公所)	1948~1950
인천중화상회(仁川中華商會)	1948~1950
인천화교자치임시위원회(仁川華僑自治臨時委員會)	1951~1952
인천화교자치회(仁川華僑自治會)	1953~1955
인천화교자치구(仁川華僑自治區)	1955~1960
인천중화협회(仁川華僑協會)	1960~현재

자료 : 이창호(2011:49)

❍ 개항 후 인천에 청국 조계가 설치된 후 화교사회 대표를 뽑아 중화회관이 설립되었으며, 동향회와 회관이 차례로 만들어짐

- 타향에 이주하는 중국인들은 방(幇)이라는 동향단체를 만들고 공소로서 회관(會館)을 조성하는데, 인천 화교들은 1891년 산둥동향회, 1899년 남방회관, 1900년 광방(회관) 등을 차례로 건립[17]

- 1913년 인천지역 북방, 광방, 남방 상인들의 연합조직으로 인천중화상무총회 결성

17) 이정희·송승석(2015:265)

❍ 이합집산을 거쳤던 화교단체는 남분 분단과 동아시아 냉전으로 인해 주한 중화민국 총영사관의 영향 속에서 행정업무와 상업업무를 동시에 관할하는 화교협회로 단일화됨[18)]

❍ 중화민국 정부의 인정과 지원을 받는 화교협회는 화교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통합된 단체였지만 1992년 한중 수교에 따른 중화민국과의 단교로 화교협회의 입지가 좁아짐[19)]

❍ 현재 인천화교협회는 회장 1인과 내무, 외무, 공관, 총무, 감사장 역할을 맡는 부회장 5인으로 회장단을 구성[20)]

- 화교 20명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이사 20여명의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며, 선출 회장이 부회장을 지명
- 화교협회에는 청년회, 부녀회 및 인화예우회 등 직능모임, 인화라이온스클럽 등 화교 친목 모임이 산하 조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사 선출은 주로 이 같은 모임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짐

〈인천화교학교(仁川華僑中山中 · 小學)〉

❍ 인천 화교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모두 합해 화교학교라고 부름

- 1902년 4월 개교한 인천화교 학교는 한국 내 화교학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짐

❍ 2015년 현재 사립 각종학교[21)]로 분류되어 있는 인천화교 학교의 전체 재학생은 총 301명임

- 유치원 25명, 초등부 118명, 중등부 76명, 고등부 82명으로 학급 수는 각각 2개, 6개, 3개, 3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인천화교학교는 화교들의 교육기관으로 세대를 거치면서 언어, 문화 교육을 통한 커뮤니티의 유지와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옴[22)]

- 자녀 통학을 위해 화교들은 주로 차이나타운 인근에 거주함으로서 화교사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23)]

18) 이창호(2011:51-53)
19) 이창호(2011:55-56)
20) 인천 화교협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는 손덕준·송승석(2012:191-217) 참고
21)각종학교는 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말함
22) 인천 화교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할 및 현황에 대해서는 손덕준·송승석(2012:231-244) 참고

❍ 화교학교는 화교협회와 함께 인천 화교사회의 중요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등 행사를 통해 중국전통놀이·공연 등을 계승·유지하고 있음[24)]

- 1919년 5월 4일 베이징에서 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항일시위운동인 5·4운동과 희생 중국청년을 기리기 위한 청년절 행사를 매년 3월 29일 인천 화교학교 강당에서 진행
- 매년 4월4일이 되면 인천 화교학교에서 아동절 기념행사를 진행. 참석 학생들은 중화민국 국가를 제창하고 단상 벽에 붙어 있는 쑨원 초상에 절을 세 번 올리고 학생 대표가 쑨원의 유언문을 낭독 함
- 아시아 최초의 공화제 혁명이었던 신해혁명(辛亥革命)이 발발했던 1911년 10월10일을 중화민국 건국일로 삼아 매년 10월10일 개최하는 쌍십절(雙十節)건국절 행사는 화교사회의 가장 큰 연례행사임. 2011년 중화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를 화교학교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타이완 주한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함

〈그림 6〉 인천화교학교 연간 주요 행사 (2011년)



청년절 기념식



아동절 학생대표 쑨원 유언문 낭독



중화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26.129.162.163)

❍ 인천화교학교는 현재 중화민국의 교재를 사용하며 번자체 중문 교육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화민국 또는 한국정부로부터의 별도의 교육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 운영비 대부분을 재학생 학비 및 화교사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23) 인천화교사회 침체기였던 1980-90년대 화교들은 서울이나 인천 주안, 부평 등지에서 중식당을 경영하거나 주방에 근무하였지만, 차이나타운에 소재한 화교학교로의 자녀 통학 편리를 위해 주로 송월동 및 인천역 근방에 거주하며 인천 차이나타운을 떠나지 않았음(손덕준·송승석,2012:115)

24) 관련 내용은 국립중앙민속박물관(2012:126-163) 참고

〈인천차이나타운번영회〉

- ❍ 2004년 인천차이나타운에 소재한 중국음식점을 위주로 한 상인이익단체의 성격을 갖는 인천차이나타운번영회가 구성됨
- ❍ 차이나타운 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인천차이나타운번영회가 자연스럽게 화교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새로운 사회조직으로 부상함[25)]
- ❍ 2015년 기준 번영회 소속 회원상점은 총 73개소이며, 운영위원 32명, 일반회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1개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번영회 소속 상점 가운데 중국음식점 대부분은 화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주로 카페나 편의점 등을 운영함
  - 2014년부터 화교와 한국인 공동회장제로 운영되고 있음

3. 종합 및 시사점

❑ 인천화교의 가치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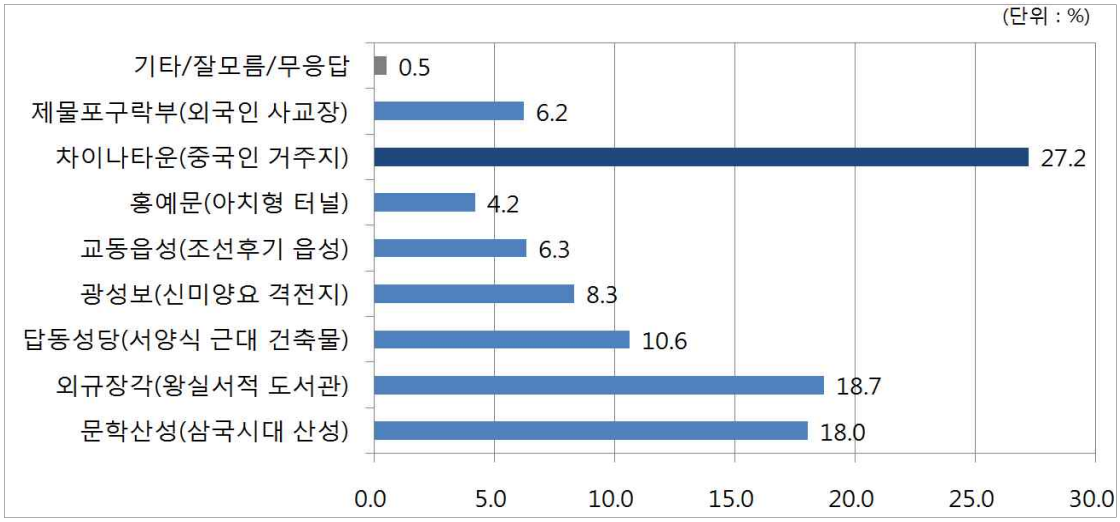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개항과 함께 인천에 정착하여 살아온 중국 해외이주민과 그 후손인 화교들은 혈연적·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인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 옴
- ❍ 우리와는 다른 이문화(異文化)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화교들은 다문화의 담지체이자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상징적 집단임
- ❍ 더불어 화교사회의 형성과정이 인천의 근대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역사성(또는 정통성)을 공유하고 있음[26)]
- ❍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 유적지로 화교 집거지인 차이나타운을 꼽고 있음
  -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보유 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7.2%가 차이나타운을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유적지로 인식하고 있음[27)]

---

25) 인천차이나타운 상가 현황 및 번영회에 대한 내용은 권기영 이정희 편(2015:232-234) 및 손덕준·송승석(2012:115) 등 참고

26) 인천화교가 갖는 가치와 관련하여 특수성, 탁월성, 국제성, 정통성, 실용성 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김창수(2016)를 참고

〈그림 7〉 인천 도시이미지 보유자원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고유 역사·문화 유적지



자료: 최영화(2016:20)

❍ 인천화교가 갖는 국제성과 다문화성은 국제화된 개방도시로서의 지역 특징과 강점을 발전시켜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함

- 최영화 외(2016:10-12)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천 대표이미지에 대해 질문에 답변자의 32.0%가 '공항·항구'를 꼽았으며, 인천이 가진 특성·강점에 대해서도 45.8%가 '공항·항구로 개방된 도시'라고 답함

- 인천의 미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제 대한 문항에 답변자의 21.4%가 '국제교류 확대'라고 응답하였음

❍ 인천화교가 갖는 특수성, 역사성은 200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인천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근간이 되었으며, 인천시 중구청은 인천화교 및 화교집거지가 갖는 가치를 활용하여 장소매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용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적극 활용되었음

❑ 인천차이나타운 명소화의 문제점

❍ 인천 화교사회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냉전시대의 개막 등 국제정세는 물론 화교경제를 제약하는 일련의 국내 정책의 영향으로 쇠퇴하였음

❍ 이 같은 과정 속에서 화교들의 경제활동과 업종이 제약되었고, 동남아국가

27) 관련 내용은 최영화 외(2016) 참고

화교 수준의 자본축적을 이루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추지 못함

- ❍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인천차이나타운 개발 과정은 인위적 중국풍 경관 조성에 주안점을 둔 공공부문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쇠락했던 화교집거지는 빠르게 관광명소화 되었음
- ❍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교의 역사와 문화를 진정성 있게 구현하지 못하였으며 상업화된 먹거리 위주의 관광명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28)]
- ❍ 인천 개항장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들이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음[29)]
  - 2015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작성된 개항장 관련 언급글 가운데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63,356건의 83.1%인 52,623건이 차이나타운을 언급하고 있어, 차이나타운이 인천 개항장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차이나타운 연관어 중 45% 이상이 짜장면, 짬뽕, 만두, 탕수육 등으로 이 지역 방문 목적이 주로 중국음식을 먹기 위한 것임을 보여줌
  - 또한 차이나타운과 연계된 방문지역이 개항장 일원의 문화/예술 지구가 아닌 동화마을, 월미도, 자유공원, 송도 등으로 개항 역사·문화 유적지로서 인천차이나타운의 매력과 진정성의 구현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과정에서 물리적 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 등에 집중되었던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그동안 주로 화교 유적·건축물 등의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인천 화교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 및 근현대 유물·기록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발굴/보존/확산을 포함한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8) 차이나특구 개발 계획이 '차이나타운=중국음식점타운'이라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신성희(2008:94)는 '언어', '예술', '종교' 등 다양한 중국 콘텐츠들이 역사적으로 계승되고 재생산되는 '다국적 문화력'의 구심 공간으로서 차이나타운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29) 관련 조사 결과는 윤하연(2016:2,5-6,10-11) 참고. 필자가 인천차이나타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쇼셜메트릭스(http://insight.some.co.kr/campaign.html)홈페이지를 활용하여 2016년 3월20부터 4월 20일의 1달 간 차이나타운을 언급한 온라인 정보의 수집·분석 결과와 유사함

Ⅲ 인천 화교 역사 · 문화자산 현황 조사

❍ 인천화교 관련 역사문화 자산에 대한 유형별 조사에 기초하여 현황을 점검하도록 함

-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문화재청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 분류에 따라 ▲유적·건조 유산 ▲무형유산 ▲유물·기록유산으로 구분하여 조사·정리함

1. 인천화교 유적 · 건조 자산

❍ 문화재청에서 정하고 있는 유적·건축 문화재 세부유형은 <표 6>과 같음

〈표 6〉 유적 건조물 문화재 유형 분류

분류	세부 항목
주거생활	주거지, 주거건축, 조경건축, 근대주거
무덤	무덤, 왕실무덤,근대무덤
정치국방	궁궐, 관아, 성, 전적지, 근대정치국방
산업생산	농어업, 염업, 제조업, 요업, 광업, 근대산업생산
교통·통신	교통, 통신, 근대교통, 통신시설
종교신앙	불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교, 민간신앙
교육문화	교육기관, 근대교육문화
인물사건	인물기념, 근대인물
유물·유적분포지	육상·수상유물산포지, 유적분포지

자료 : 문화재청 문화유산 유형 분류 참고하여 작성

❍ 근현대를 거쳐 조성된 인천화교 유적 및 건축물로 아래의 12개를 꼽을 수 있음

❍ 이를 원래의 용도에 따라 유물·유적, 생산·주거, 행정·교육, 종교신상시설로 분류하여 그 형성 기원 등을 정리함

- 유물·유적: 조계지 계단, 중화루터, 청국인 묘지터
- 생산·주거: 공화춘, 점포주택 5개
- 행정·교육: 청국영사관터, 화교학교

- 종교신앙시설: 의선당

❍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은 <그림 8>과 같이 인천차이나타운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음

- 짜장면 박물관, 한중문화관, 인천화교역사관 등 인천 화교 역사문화 전시시설이 차이나타운에 함께 자리를 잡고 있음

〈그림 8〉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 분포



1) 유물 · 유적

❑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 1883년 설정된 일본 조계지와 1884년 설정된 청국조계지의 경계를 이루는 계단으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으로 연결. 200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1호로 지정

❍ 조계지 경계계단은 중앙에 석조 계단이 형성되어 있고, 양단을 중심으로 급한 경사인 점을 감안하여 계단참을 두고, 조경식재 공간을 마련

- 인천시 중구청에서는 2003년 재정비를 통해 계단 좌우에 각각 중국과 일본 양식의 석등을 배치
- 2002년 6월 중국 칭다오시에서 기증한 공자상을 계단 상단부에 설치

〈표 7〉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구조

주소	인천 중구 전동 24번지 외		
건립연대	1904년 이전		
현존여부	O		
종별	기타주거		
용도	계단		
대지	965.6㎡		

자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12:32)
사진자료: 두산백과 및 현지촬영(2016-06-14)

❑ 중화루(原대불호텔)터

❍ 1918년 뢰소정(賴紹晶)을 비롯한 40여 명의 화교들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었던 대불(大佛)호텔 건물을 인수, 운영했던 중국요리점인 중화루(中華樓)의 터[30]

- 대불호텔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1888년 개항장의 해운업자였던 호리 일가에 의해 건립되어 개항 후 10여 년간 호황을 누렸으나, 경인선 개통 후 쇠락하여 1918년 폐업

30) 인천 대불로텔과 중화루의 변천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창수(2010)을 참고할 수 있음

- 당시 대불호텔은 서양식 3층 벽돌 건물로 2층짜리 목조건물이 인접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인천 최고의 고급 중국식당으로 명성이 높았던 중화루는 차이나타운의 쇠락과 함께 경영난을 겪다 1970년 폐업

❍ 건물은 1978년 철거된 후 나대지로 방치되다가 2011년 건물신축을 위한 공사 과정에서 지하에서 벽돌 기단 등 유구가 발견

❍ 문화재청 원형보존 권고이후 토지소유주의 중구청 기부채납. 2016년 9월 현재 중구청의 대불호텔 외형 재현 공사가 진행 중[31)]

〈표 8〉 중화루(原대불호텔) 건축구조

주소		중구 중앙동1가 18
건립연대		1885년 이전
현존여부		X
종별		사무/상가
용도		사무/상가
면적	대지	386.8㎡
	건축	-
	연	737.2㎡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우진각지붕





자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12:58)
사진자료: 烟台日报 (2009-07-11) 및 한국문화재단문화유산정보
(https://www.chf.or.kr/c2/sub2_2.jsp?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rdType=R&bbIdx=101449:검색일 2016-09-30)

❑ 청국인 묘지

❍ 중국인묘지(의장지)는 1884년 4월 2일에 조인된'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에 중국인을 위한 매장의지(埋葬儀地) 조항에 따라 설치

- 관련 조항에는"제물포에서 10여리 떨어진 지대 이내에 화상(華商)이 적당한 산전(山田)을 선정하여 공동묘지를 만들고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묘지를 지킬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적시

❍ 이에 따라 1912년 무렵 옛 인천대학교 정문 근처인 남구 도화동 241 일대

31) 대불호텔 재현과 관련한 인천 중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신문기사 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8426: 검색일 2016-09-30)

에 중국인묘지 형성

- 1884년 이전 중국인묘지는 내동 6번지 일대에 암암리에 혹은 우리 정부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조성. 그 후 도시화에 따라 묘역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32)]

❍ 도화동 소재 중국인묘지는 인천 도시계획과 선인재단의 해당지역 점용 및 학교 건설로 1959년 인천시 남구 만수동으로 1,997기를 옮겼으며 1962년 이장을 모두 마침[33)]

❍ 중국인묘지는 1988년 만수동 일대를 포함한 구월지구의 구획정리를 통한 택지조성으로 인해 인천부평가족공원으로 이전

- 현재 인천부평가족공원 내에 총 2,866기의 중국인 묘가 있음

2) 생산 · 주거

❑ 공화춘(共和春)

❍ 인천차이나타운의 대표적 고급 중국음식점이었던 공화춘 건물로 2006년 4월 14일 등록문화재 제246호로 지정

❍ 1908년 건립된 2층 건물은 당시 청조계지의 건축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전체 건물형태가 '목(目)'자형으로 각각 연결된 건축물 사이에는 중정 구성

❍ 화교 위시광(于希光)이 아시아 최초의 공화제 혁명인 신해혁명(1911년)을 기념하기 위해, 1912년 청조계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이자 숙박업소인 산둥회관의 명칭을 공화춘으로 변경

- 1928년 발행 지도에는 공화춘 현 위치에 미곡잡화점인 원화잔(元和棧)만이 표기. 1930년 발행된 <경성·인천전화번호부>에는 현 지번에 원화잔과 함께 중국음식점인 공화춘이 함께 표기

❍ 공화춘은 1983년 폐업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터를 매입하여 2012년 짜장면을 테마로 한 짜장면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

---

32) 관련 내용은 인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2007:192-193) 참고—내리에 있었던 청국인 묘지터가 갖는 공식성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송승석·이정희(2015:87-93)의 내용 참고.

33) 인천 만수동 중국인 묘지 이장에 대한 인천화교협회의 문헌 내용은 송승석·이정희(2015:114-120) 참고

〈표 9〉 공화춘 건축구조

주소		중구 선린동 38-2
건립연대		1908년
현존여부		O
종별		사무/상가
용도		현)전시장 원)영업소
면적	대지	581.8㎡
	건축	418.32㎡
	연	836.64㎡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문화재단(2015:29)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6-14)

❑ 선린동 1-5번지 점포주택

❍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건축물대장에 1934년으로 등재된 중국식 점포주택. 청국조계지에 남아 있는 주택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음

〈표 10〉 선린동 1-5번지 점포주택 구조

주소		중구 선린동 1-5
건립연대		1934년 이전 추정
현존여부		O
종별		기타주거
용도		점포주택
면적	대지	290.9㎡
	건축	119.01㎡
	연	224.79㎡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2012:33)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6-14)

❑ 선린동 25번지 점포주택

❍ 1939년 건립. 중국인 여성연 소유의 주택을 1995년 천주교재단이 매입하여 해안천주교 교육관으로 개조하여 사용

❍ 최근 카페로 사용되다가 2016년 9월 현재 내부수리 중임

<표 11> 선린동 25번지 점포주택 구조

주소		중구 선린동 25-2
건립연대		1939년
현존여부		O
종별		기타주거
용도		(현)상업시설 (원)주택
면적	대지	190.7㎡
	건축	158.68㎡
	연	317.36㎡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우진각지붕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2012:31)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6-14)

❑ 선린동 28번지 점포주택

❍ 1930년 발행된 <경성·인천전화번호부>에 공의조합(共議組合) 기록이 있음

<표 12> 선린동 28번지 점포주택 구조

주소		중구 선린동 28-1
건립연대		1961년
현존여부		O
종별		사무/상가
용도		영업소
면적	대지	244.6㎡
	건축	163.63㎡
	연	320.65㎡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우진각지붕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2012:31)

❑ 선린동 29번지 점포주택

❍ 1층은 상점, 2층은 주거공간인 인천의 전형적인 중국식 점포주택

❍ 현재 대창반점 등 중국음식점과 중국제과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표 13〉 선린동 29번지 점포주택 구조

주소		중구 선린동 29-4 일대
건립연대		1925년
현존여부		O
종별		사무/상가
용도		점포주택
면적	대지	414.2㎡
	건축	199.34㎡
	연	385.75㎡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2012:28)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9-02)

❑ 선린동 32번지 점포주택

❍ 1층은 상점, 2층은 주거공간인 인천의 전형적인 중국식 점포주택으로 29번지 점포주택과 마주하고 있음

- 1930년 발행된 <경성·인천전화번호부>에 동화잔(同和棧)영업 기록이 있음
- 현재 풍미 등 중국음식점과 상점으로 사용 중

〈표 14〉 선린동 32번지 점포주택 구조

주소		중구 선린동 32-6 일대
건립연대		1925년
현존여부		O
종별		사무/상가
용도		점포주택
면적	대지	677.9㎡
	건축	296.2㎡
	연	823.2㎡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2012:29)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9-02)

3) 행정 · 교육

❑ 청국영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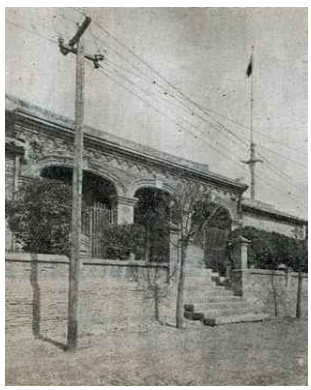
❍ 청국은 1884년 인천에 조계를 설치하고, 그 해 10월 중국 선린동에 영사관 설치. 초대영사로 자원옌(賈文燕)이 부임

- 영사관은 본청(약 466.1㎡), 순포정(158.6㎡), 전보국 등이 있었고 신포동에 분청을 둠[34)]

❍ 청일전쟁 이후 일시 폐쇄되었다가 1898년 다시 개청. 한국전쟁 중에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고 1934년 영사관 터에 화교중산학교 신축

〈표 15〉 청국영사관 구조

주소		중구 선린동 9일대
건립연대		1884년
현존여부		X / 회의청 (○)
종별		사무/상가
용도		영사관
면적	대지	-
	건축	-
	연	-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문화재단(2015)
사진자료: 인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2007:74.75)

❍ 현재 남아 있는 영사관 회의청은 인천화교협회 전시관 및 집회장으로 사용[35)]

- 회의청은 1910년에 자웬옌이 건립. 건축물의 구조는 기단 위에 건물을 세우고 맞배지붕을 올린 단순한 구조이지만 좌우대칭의 입면과 정교하게 조각한 문살 등으로 치장
- 정면을 5칸으로 건물 중앙부에 회랑을 둠. 6칸 접이문이 주 출입구 역할을 하고 좌우에는 각기 3개의 창문을 배치
- 건물 정면에는 자원옌이 1910년에 쓴'만국의관(萬國衣冠)'이라는 현판과 조선인중화총상회가 1922년에 설치한'낙선호시(樂善好施)'현판이 좌우에 함께 걸려있음

34) 인천중구문화원(2015:24-25)
35)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12:74.75)

❑ 화교중산학교

❍ 1934년 전 청국조계지 청국영사관 터에 건물을 건립. 현재 건물은 1955년 화재 후 신축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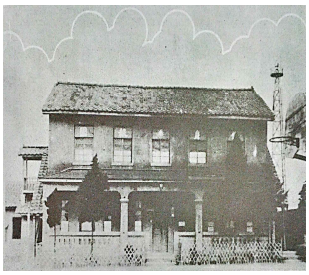
❍ 인천의 화교학교는 1902년 초등부가 학제 7년의 사숙 교육기관으로 당시 중화상회 건물에 창립[36)]

- 1923년 많아진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중산학교 중고등학교 건물 위치에 교실 3칸을 짓고, 학제를 6년으로 변경
- 1934년 청국영사관 터에 건물을 건립하고, 인천화교소학과 노교(魯橋:산둥 출신 화교)화교소학을 인천화교 소학으로 통합
- 1942년 학생 수가 수 백명에 달하면서 2층짜리 교사 대례당(大禮堂)을 신축해 1층은 교실, 2층은 강당으로 사용
- 1955년 1월 화재로 건물전체가 소실되어 12월 복흥당(福興堂)으로 신축
- 1957년과 9월 1일 중등부를 신설하면서 교명을 중국의 국부로 추앙되는 쑨원(孫文)의 호를 타서 인천중산소학과 중산중학으로 바꿈
- 1964년 1964년 9월 1일 고등부 설립

❍ 수 차례에 걸쳐 건축과 소실을 겪은 학교 교사는 1951년 지어진 소학교 건물과 1977년에 현재 중학 건물을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표 16〉 중산학교 구조

주소		중구 선린동 8
건립연대		1934년
현존여부		O
종별		교육시설
용도		학교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우진각지붕





자료 :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2012:28)
사진자료: 인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2007:74.75)

36) 1902년 인천 중화상무총회 (현 인천화교협회) 건물의 창고 한 켠을 내어 인천 화교학당이 세워졌고, 사숙(私塾)방식으로 공부를 시작. 30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당시 교장은 부영사관이었음. 인천화교학교의 자세한 역사 및 역할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재단 2015년 펴낸 한국인천화교중산중소학 자료집『114년의 기억, 한국인천화교중산중소학 1902-2015』을 참고

4) 종교신앙

❑ 의선당(義善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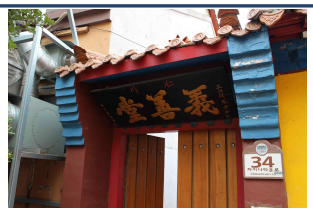
❍ 인천 차이나타운에 소재한 중국식 사당인 의선당은 화교들이 인천에 들어와 해외에서 단결하며 의롭게 살고 자신들이 평소 믿었던 신앙을 모시기 위해 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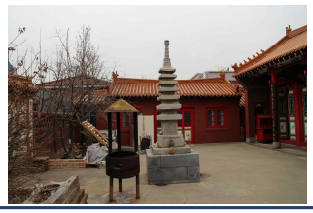
- 창건 시기는 1893년으로 추정. 의선당 위패에는 황허징(黃合卿)을 개산조로 명기
- 의선당에는 1920년~30년대에 조성한 편액이나 기물이 많이 남아있음
- 의선당 마당에서는 석탑이 있으며, 춘절 화교사회의 단체 진향 등을 위한 화로가 놓여져 있음

❍ 의선당에는 중국 전통의 불교, 도교와 토테미즘, 실존인물 등 여러 신앙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선당 본전에는 다섯의 신(神)과 선(善)상이 모셔져 있음

〈표 17〉 의선당 구조

주소		중구 북성동2가 9-13
건립연대		1893년
현존여부		○
종별		종교시설
용도		사찰
면적	대지	363.6㎡
	건축	148.76㎡
	연	148.76㎡
구조	벽체	조적조/목재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2012:25)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9-02)

2. 인천 화교 무형자산

❍ 인천 화교들이 가정 및 공동체를 통해 전승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조사·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 ▲전통 공연·예술 ▲민간신앙 ▲전통지식과 기술 ▲절기풍속 ▲일생의례로 나누어 정리함

-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란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일컬음[37)]
- 구체적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을 포함함
- 문화재청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각 유형에 포함되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분야는 아래 <표 18>과 같음

〈표 18〉 무형문화재 유형 분류

분류	세부 내용
전통 공연·예술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전통기술	공예, 건축, 미술
전통 지식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구전 전통·표현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표현
전통 생활관습	절기풍속, 의식주 생활, 생활관습
의례·의식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전통 놀이·무예	놀이, 축제, 기예, 무예

자료 : 문화재청 문화유산 유형 분류 참고하여 작성

37) 관련 법률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

1) 전통 공연 · 예술

❍ 화교 무형 문화자산으로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을 포함하는 전통 공연·예술 및 놀이, 축제, 기예, 무예 등의 전통 놀이·무예를 들 수 있음

❍ 화교 전통 공연과 놀이는 인천화교학교를 통해 전승되고 있음[38)]

- 개교기념일 또는 운동회 등의 행사 때, 전통민속춤, 태극권 시범, 사자탈춤 및 용춤 등 전통 공연을 함[39)]
- 1950년대 각종 화교 행사시 화교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자춤, 용춤, 죽마놀이 등을 비롯한 전통공연을 거리에서 개최한 기록이 있음

〈그림 9〉 1950년대 인천화교 전통 공연

<table>
<tr><td></td><td></td><td></td></tr>
<tr><td>용춤 (1950년대)</td><td>사자춤 (1953년)</td><td>죽마놀이(1953년)</td></tr>
</table>

자료: 인천문화재단(2015)

❍ 2002년부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열리는 한중문화축제(4월30일-5월1일) 기간에도 거리에서 사자춤 등 전통공연 개최

❍ 현재 한국 각지의 화교학교 가운데 인천과 부산에서만 사장춤과 용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인천화교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자춤은 초창기 북방식 사자춤이 아니라 1999년 타이완으로부터 전수된 남방식 사자춤임

38) 인천 화교 사회의 전통놀이에 대한 기록사진 및 내용은 인천문화재단(2015)의 3장 참고
39) 중화문화권에서 사자춤과 용춤은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시연되는 춤으로 액을 물리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를 지님. 관련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2012:137-141) 참고.

〈그림 10〉 2011년 인천화교 전통 공연



인천화교학교 개교기념일 행사



한중문화축제 거리공연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38,136)

2) 민간신앙

❍ 인천 차이나타운에 소재하고 있는 의선당의 신상 등을 통해 화교들의 민간신앙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현재 의선당에는 법사가 없어 전통적인 신앙 행사가 열리지 않음
- 그러나 인천화교들이 개인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고 있고, 명절 때면 화교들이 이곳에 모여 인사를 하는 등, 여전히 중요한 정신적인 장소로 역할을 함(박현규,2009:250)

❍ 의선당에는 중국 전통의 불교, 도교와 토테미즘, 실존인물 등 여러 신앙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선당 본전에는 다섯의 신(神)과 선(善)상이 모셔져 있음[40]

- 인천차이나타운 형성기 여러 지역의 화교들은 인천으로 이주해오면서 각각 자신들의 지역에서 신봉하고 있던 민간 신앙을 의선당으로 모셔왔고, 여러 신앙들이 수렴되어 공존하는 것으로 추측됨

❍ 묘우 정전 내부 왼쪽부터 호삼태야(狐三太爺), 사해용왕(四海龍王), 관음보살(觀音菩薩), 관우(關羽), 마조(馬祖)상이 자리를 잡고 있음[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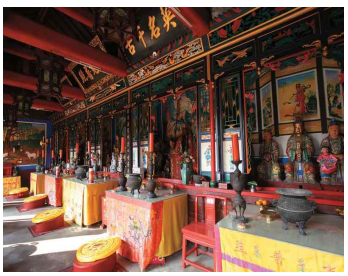
40) 의선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규(2009) 및 국립민속박물관(2012:60-68) 참고
41) 의선당 다섯신상에 대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2012:60-68) 및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2008:39-44) 참고.

- 호삼태야는 여우를 숭배하는 산둥지역 토속신앙에서 기원했으며, 사해용왕은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으로 산둥에서 인천까지 무역을 했던 당시 청국상인들이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해서 모신 신임
- 관음보살은 다섯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해당되는 신으로 신상의 가운데 위치. 화교들은 관음을 집안의 태평과 아이를 보호하는 신으로 여김
- 재물과 벽사(辟邪)를 관장하는 관우를 재신으로 받들고 있음
- 타이완을 비롯한 도서지역에서 모셔지는 해신인 마조의 상이 모셔져 있음

❍ 본전 좌우 벽면에는 오행신위(五行神位)와 약왕신(藥王神), 수문장(守門將) 등 소형 신단이 있고, 본적 바깥 외벽에는 천지군사부(天地君師父)를 모시는 소형 신단이 있음

❍ 별당에는 석가여래불, 호선, 서왕모(西王母), 천군호법(天君護法), 여조(呂祖), 장방옹조(長房翁祖), 호법소야(護法小爺), 황합경 등 신상 또는 신위가 모셔져 있음

〈그림 11〉 의선당 본관 신단 배치 및 각 신상

<table>
<tr><td></td><td></td><td></td></tr>
<tr><td>신단 배치</td><td>호삼태야</td><td>사해용왕</td></tr>
<tr><td></td><td></td><td></td></tr>
<tr><td>관음보살</td><td>관우</td><td>마조</td></tr>
</table>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62-67)

3) 전통지식과 기술

- ❍ 인천 화교사회에서는 대를 이은 가업승계를 통해 관련 경험과 지식·기술이 전승되고 있음
- ❍ 인천 화교 생애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중국요리 제조기술을 비롯하여 전통의학, 신발공예 등과 관련된 전통지식·기술 전수 사례를 들고 있음[42)]
- ❍ 인천 차이나타운연합회 초대회장 및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쑨더준(孫德俊)과 같이 많은 화교들이 가업인 중국요리 기술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이를 직업으로 삼기도 하였음

"난 기술, 요령 그런게 좀 있었던 것 같아. 몇 수 가르쳐주면 금방 배웠으니까. 그러니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면도 뽑을 줄 알고, 볶음밥도 잘 볶고 짜장 소스 다 볶았어"(손덕준·송승석(2012:68-71))

- ❍ 인천에서 익생춘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하이 출신 인천화교 진바오윈(金寶雲)은 3대에 걸친 전통 한방의사 집안의 후손으로서 윗대의 처방전을 보존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 한의원 처방은 집안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 아버지가 쓴 처방전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옛날에 진단할 때 쓴 진단서 차트를 복사해서 그걸 터득을 하는 거죠 (…) 우리 집안 가보니까 누구한테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국립민속박물관.2012:199-201)"

- ❍ 인천 신포시장에서 1940년대 개업한 중국 전통수제 신발상점인 의흥덕(義興德)을 2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화교 취더청(曲德城)과 같이 가내수공업 형태의 가업을 통해 전통기술을 전수받기도 함

"옛날에는 신발수요가 많았어요 (…) 일이 많아서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일한거지요. 나도(취더청) 그 때부터 일 배워서 못 비뚤어진 거 손하고 망치 이용해서 펴는 법, 미싱 배우고 바닥 배우고 그랬어요. 열심히 해야지요. 아버님한테 배운 거니까. 계속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어서 좋아요" (국립민속박물관. 2012:202-207)

42) 관련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2012:199-207) 참고

4) 절기풍속

❍ 인천화교들은 절기풍속 및 관련 전통제례를 통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중국 전통과 문화를 계승해오고 있음

- 국립민속박물관(2012)의 조사를 중심으로 인천 화교사회의 소년, 춘절, 원소절, 단오, 중추절 절기 풍속을 정리함[43)]

❑ 소년(少年) - 음력 12월 23일

❍ 화교들은 음력 12월 23일 소년(少年) 저녁, 집안 재물을 관장하고 부엌을 지켜주는 조왕(竈王)에게 제사를 지냄

❍ 소년의 조왕제사는 '상천언호사(上天言好事)', '하계강길상(下界降吉祥)' 즉, '하늘로 올라가서 좋은 말을 해 달라', '땅으로 내려와서 좋은 행운을 달라'라는 의미를 지님

- 화교들은 조왕이 이 날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자신이 1년 동안 머물고 있던 집안의 대소사(大小事)를 옥황상제에게 보고한다고 여김

- 주방 한 구석에 모셔둔 조왕 제단에 사탕과 엿, 달콤한 것들을 제물로 사용하는 독특한 제사상차림을 함[44)]

〈그림 12〉 소년 조왕신 제사



조왕도


제사상


제사모습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96-100)

43) 국립민속박물관(2012:96-161) 의 내용 가운데 절기 풍속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
44) 제물로 달콤한 간식을 올리는 이유는 옥황상제에게 달콤한 말을 전해달라는 의미임

❑ 춘절(春節) - 음력 1월 1일

❍ 음력설 '춘절'(春節)은 화교들에게 가장 큰 명절로서 화교들은 춘절 일주일 전부터 각종 제례 등을 준비

❍ 섣달그믐날 자정이 되면 춘절제사를 준비하는데 춘절 차례상에 향, 과일, 튀김, 빵, 과자, 차(茶), 술 등을 제물로 올림

- 중국 산동성을 대표하는 명절음식인 빵 보보(饽饽)를 반드시 올리고, 지전(紙錢)과 원보(元寶)를 준비함
- 화교들은 춘절 때 꼭 먹는 물만두의 속으로 대추, 땅콩, 동전을 이용하기도 함. 우연히 이 만두를 먹는 사람들은 재물과 복이 온다고 믿음

❍ 화교들은 춘절에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세뱃돈 '홍바오(紅包)'를 자식 및 경영 식당 종업원들에 나누어 줌

❍ 가족 제례를 마친 화교들은 설날 아침, 의선당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선당에 모셔진 신에게 진향함

〈그림 13〉 춘절 화교 가정 제례 및 의선당 행사



만두 빚기와 춘절 상차림



춘절 가정 제례



의선당 춘절 진향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01-113)

❑ 원소절(元宵節) - 음력 1월 15일

❍ 화교들은 정월 대보름날을 '등불의 날' 혹은 '원소절'이라고 부름

- 정월이 '원월(元月)'이며 달이 뜨는 저녁 이후로의 밤을'소(宵)' 라고 하는데서 기원. 등을 켜고 그 등불을 구경하면서 찹쌀 경단인 원소를 먹음

❑ 단오(端午) - 음력 5월5일

❍ 화교사회에서는 단오에 찹쌀을 대나무 잎에 싸 찐 쫑쯔(粽子)[45]를 만들어 먹고, 벽사(辟邪)의 의미로 쑥 다발을 만들어 문고리에 걸거나 건네주는 풍습이 있음

❑ 중추절(仲秋節) - 음력 8월15일

❍ 화교들은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하며 일 년 중에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뜨는 날을 의미, 둥근 달의 모양을 한 중국의 전통과자 월병(月餠)을 먹음

〈그림 14〉 원소절, 단오, 중추절 화교 전통 음식, 풍속, 제례

<table>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원소절 경단 및 제례상</td><td>단오 쫑즈 및 쑥다발 걸기</td><td>중추절 월병 및 제례상</td></tr>
</table>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22-125,148-150,155-161)

45) 중국인에게 쫑쯔는 중요한 세시 음식임. 중국 초나라 회왕 때 충신 굴원이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해 멱라수에 투신자살을 하였는데, 백성들이 굴원의 충절을 기려, 물고기들이 굴원의 몸 대신 먹으라고 대나무 잎에 찹쌀밥을 싸 강에 던졌다는 전설에서 유래

5) 일생의례

❍ 인천화교들의 일생의례 가운데 전통문화와 관습을 현실에 적응하여 변경하되 그 근간이 되는 핵심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관습으로 결혼 및 성묘 등을 들 수 있음

❑ 결혼식[46)]

❍ 인천화교들은 결혼식 당일 오전에 신랑 집에 차려둔 사당 혹은 조사위패에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께 결혼식을 고함

❍ 화교들의 결혼식은 피로연을 겸해 열리며, 차이나타운의 고급 중국식당을 식장으로 이용함

- 하객들은 식장 입구에 놓인 분홍보자기에 방명록을 작성하고, 축의금인 홍빠오를 전달함
- 행사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식장 입구에서 참석 하객들에게 사탕과 담배를 전하며 답례를 함

❍ 결혼식을 마친 후 신랑과 신부는 신랑집 입구에서 벽사를 위해 기와장 깨기와 숯불 타넘기를 거쳐 신랑집에 들어섬

❍ 신랑, 신부는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사당에서 절을 올려 조상들에게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음을 고함

〈그림 15〉 화교 결혼식 관습



식전 사당 제례	결혼식 및 하객에게 사탕 전달	신부 맞이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43,146,147)

46) 국립민속박물관(2012:142-147)의 내용 정리

❑ 성묘

❍ 인천화교들은 주로 원소절과 4월5일 청명절(淸明節)에 중국화교 묘역에 조성되어 있는 조상묘에 성묘를 감

- 중국 농경사회에서는 24절기 중 5번째 절기인 청명이 오면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봄철 파종에 매우 좋은 시기로 인식하고,
- 1년간 비바람에 시달린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성묘를 감

❍ 원소절 성묘는 춘절 때 집안에 모셔온 망자의 넋을 다시 저승으로 보내드린다는 의미를 지님[47)]

- 이에 원소절 성묘 때에는 망자의 넋이 저승으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혼이 오고가는 길에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를 갖는 “혼 구멍 등불 밝히기”와 “지전 태우기”를 함

❍ 화교들은 청명절 성묘를 하며 과일과 동물모양의 전통 빵과 도미,버섯,완자, 닭을 재료로 한 튀김을 준비하여 묘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향과 술, 차 등을 조상에게 바침[48)]

❍ 또한 저승 노잣돈을 의미하는 지전을 무덤 앞에 마련된 문 위틈 바구니에 끼워 두었다가, 무덤 주위를 돌아가면서 가지런히 놓아두기도 함

〈그림 16〉 화교 성묘 관습



지전 태우기/ 혼구멍 등불	청명절 성묘	청명절 지전 얹기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24-125,130,132)

47) 국립민속박물관(2012:123-125) 내용 정리
48) 청명절 성묘 풍습에 대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 (2012:130-133)의 내용 정리

3. 유물 및 기록 자산

❍ 인천 화교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역사문화 유산으로 유물과 기록자산을 들 수 있음

- 문화재청에 따르면 ▲회화 ▲조각 ▲공예품 ▲과학기술 용구 등을 문화재 유물로 들고 있으며, ▲전적류 ▲문서류 ▲서간류 ▲서각류 ▲근대매체 등을 기록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인천화교 관련 유물 및 기록유산은 화교들의 생활상은 물론 인천의 근현대 역사가 투영·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자산임

❍ 인천시립박물관은 <오래된 이웃 화교>기획전시전(2014.11. 25~2015.2.1)을 통해 인천화교와 관련된 각종 기록 및 유물을 전시하였고, 그 일부가 현재 인천화교역사관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음

- 인천시립박물관은 현재 중화민국 주경성총영사관 인천판사처가 1934년 발급한 화교등록증(華僑登錄證) 및 화교영취소맥분상세표(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 인천화교세대별명부(仁川華僑世代別名簿)의 기록물과 중화루(中華樓) 간판을 소장하고 있음

〈그림 17〉 인천박물관 소장 화교 유물·기록유산 및 기획전시전 전시물

<table>
<tr><td></td><td></td><td></td></tr>
<tr><td>화교등록증</td><td>화교영취소맥분상세표</td><td>인천화교세대별명부</td></tr>
<tr><td></td><td></td><td></td></tr>
<tr><td>중화루 간판</td><td>화교삼도(三刀)</td><td>화교 생활용구</td></tr>
</table>

자료: 인천박물관 홈페이지 및 인천시블로그(http://incheonblog.kr/2293(검색일: 2016-09-10)

❍ 지역 문화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인천화교 유물·기록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아카이빙 작업이 진행 중임

- 인천대학교 부설 중국학술원은 2013년 11월 인천화교협회와 협회소장 미공개자료 조사 및 전산화 작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관련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자료집을 출간[49)]

- 인천화교학교 교사와 동문들로 구성된 <선린동 사진구락부>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인천 화교사회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사진집 『114년의 기억, 한국인천화교중산중소학』을 출간함[50)]

4. 종합 및 시사점

❍ 인천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은 조계지 계단 및 공화춘, 그리고 중구청에 기부 체납된 중화루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함

- 점포·주택은 사적소유이며 청국영사관터와 화교학교 등 공공시설은 중화민국 소유임

❍ 사적소유의 유적·건조 자산의 경우 지역 장소성과 무관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철거되어 멸실될 수 있으며, 중화민국 자산은 활용의 폭이 제한적이며, 특히 중국 대륙과의 연계성이 제약될 수 있음

❍ 근현대 건축 자산은 기본적으로 원형 보존 원칙에 따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도 일반 시민들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공간으로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음(강영문.2015:195)

❍ 이 같은 측면에서 인천차이나타운에 밀집해 있는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을 교육과 문화의 구심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9) 인천대 중국학술원에서는 인천화교협회 정리 자료가 문헌사료 약 1,300건, 비문헌사료(지도,인감,사진) 약 600건이며 이 가운데 190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생성된 자료가 67건이라고 밝히고 있음. 관련 내용은 이정희·송승석(2015:25-40)을 참고.

50) 사진자료 아카이빙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enews.incheon.go.kr/main/php/search_view_new.html?idx=11164 검색일: 2016-10-10)

❍ 인천화교 사회와 각 화교 가정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일련의 화교 무형자산의 경우,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변형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개인 또는 가정에서 계승되어지고 화교 무형자산을 기록하고 이를 공적으로 보존·유지하여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화교 역사문화 활용 사업을 기회로 보다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쇠락기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활동이 침체된 인천화교협회 등 인천화교 커뮤니티에 대한 지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
- 인천화교사회와 지역 공공기관 및 전문가 집단 간 상호이해에 기초한 협업 필요이 필요함
- 이 같은 측면에서 인천화교협회와 인천대 중국학술원의 협회소장 자료 공동조사,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지원 속에서의 인천화교학교 아카이빙 작업이 갖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발굴, 유지·보존, 확산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이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기제를 마련해야 함

❍ 이를 통해 인천화교의 역사성과 고유성에 바탕을 둔 실용적 활용이 본연의 역사성과 고유성의 화교 가치를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인천화교 가치의 선순환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Ⅳ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 근현대에 걸쳐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천화교 고유의 정치·경제·사회 생활양식이 반영된 역사문화 자산이 ▲유적·건조 ▲무형유산 ▲유물 ▲기록물의 형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 청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집거하며 생활해 온 화교들이 130여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해 온 역사문화 자산은 고유한 특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명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갖추고 있음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과정에서 물리적 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 등에 집중되었던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발굴/보존·유지/확산·전승을 포함한 다각적 활용을 지원해야 함

2. 정책 제언

❍ 유적·건조 자산 및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안함

❑ 유적·건조 자산 활용

❍ 근현대 건축 자산은 기본적으로 원형 보존 원칙에 따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도 일반 시민들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공간으로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음

❍ 유적·건조 자산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실용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인천차이나타운의 유적·건조 자산의 무분별한 상업적 개조와 활용을 피하면서, 다른 유·무형 자산과의 종합적 연계를 통한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 인천차이나타운에 밀집해 있는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을 교육과 문화의 구심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
- 그 일환으로 ① 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교 역사·문화 안내를 제안함

❑ 무형자산 활용

❍ 인천화교 사회와 각 화교 가정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일련의 화교 무형자산의 경우,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변형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개인 또는 가정에서 계승되어지고 화교 무형자산을 기록하고 이를 공적으로 보존·유지하여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화교 유물·기록에 대한 보다 체계적 수집과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③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천화교역사관의 시립박물관 직영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대를 거쳐 오면서 변형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화교 무형유산의 발굴과 유지·발전을 위한 ④ 화교커뮤니티의 주체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⑤ 화교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을 위한 국내외 협력기제를 마련하는 한편, 인천 화교-산둥 간 네트워크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 함

1 화교 자산 활용 교육프로그램 확대

❑ 현상 및 문제제기

❍ 인천의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먹거리 위주의 차이나타운 명소화의 한계 극복 필요

❍ 인천화교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확대하고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함

❍ 차이나타운을 "장소를 통한 다문화·국제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51]

- 화교는 한국의 근현대 역사와 개항지 인천의 장소성을 담지하고 있는 집단이며, 화교 집거지인 차이나타운은 인천의 개항역사와 다문화집거지로서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장소자산임

❑ 정책 제안

❍ 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시민·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인천 중구청이 2008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중국어마을프로그램은 차이나타운 현장에서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의미 있음
- 프로그램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차이나타운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발전 필요

❑ 기대효과

❍ 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문화적 장소마케팅 강화를 통해 화교 자산이 갖는 인천의 장소성 확대·강화

❍ 인천 고유의 다문화·국제 교육 인프라로 조성

51) 관련 논의는 신성희(2009:125-126) 참고

[참고 자료]

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 중구청 2008년부터 차이나타운 현장에서 중국어 및 중국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 중국어마을 조성 사업 진행
- 2010년 중구문화원에 위탁운영. 2013년 7월 조례제정, <중구문화체험교실>로 명칭 변경함
- 차이나타운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체험, 관광의 접목을 시도한 프로그램은 사업 초기 중국어캠프 운영, 중국어 사용 음식점·상점 지정, 화교 대학생 참여 등을 시도함
- 2014년 어학문화강좌 및 어린이교실 폐지하고 2016년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문화체험교실'을 운영 중
- 마작체험, 차이나 현장학습, STAMP투어, 관광서포터즈 봉사활동, 펄러비즈 만들기 체험, 중국 전통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 실행






출처: http://enews.incheon.go.kr/main/php(검색일: 2016-09-10)

2 ICT 활용 화교 역사문화 안내 시스템 구축

❑ 현상 및 문제제기

-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과정에서 인위적인 중국풍 경관 조성으로 인한 장소의 진정성(authenticity)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 화교 건축물/유적의 난개발과 과도한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보완
- ❍ 화교 역사문화 안내 시스템 및 콘테츠 강화 필요

❑ 정책 제안

- ❍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활용, 장소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설명과 안내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차이나타운 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거리박물관 구현
  - 최근 QR(Quick Response)코드를 활용, 별도의 가이드 장치없이 스마트기기로 코드를 인식해 해당명소의 정보를 시각화, 영상화, 청각화된 자료로 제공하는 역사문화 서비스 증가[52)]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같은 첨단 ICT를 활용, 과거와 현재의 경관, 건축물 등을 대비시켜 입체적으로 전달
-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화교 유적·건조물을 선정하여 ICT를 활용한 경관조성 시범사업을 진행. 시민 반응 등 성과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차이나타운 전체로 확대
  - 현재 공사중인 대불호텔(중화루)재현사업과 연계하여 <ICT경관구현시범사업>추진

❑ 기대효과

- ❍ 화교 역사·문화 콘텐츠의 효과적 전달
- ❍ 화교 유적·건조물의 실용성 강화와 진정성 있는 경관의 재현

---

5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개발한 미디어를 통해 양방향 개인맞춤 안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언론보도 참고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11202109976731004: 검색일 2016-09-08)

3 인천화교역사관의 강화 및 내실화

❑ 현상 및 문제제기

❍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화교 유물·기록에 대한 보다 체계적 수집과 기록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조직 부재

❍ 인천화교역사관을 중심으로 화교유물 전시시설의 확대와 보다 수준 높은 전시물의 확충이 필요[53)]

❑ 정책 제안

❍ 인천화교역사관을 여러 시설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화교유물을 모으고 전시하는 문화 플랫폼이자 신규 유물 발굴·조사의 기획/실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 한중문화관, 인천화교역사관, 짜장면박물관 등 화교 문화인프라의 전시물 수준을 제고하고 소장 유물의 종합적 관리
- 인천화교역사관의 운영 내실화와 확대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직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 인천화교역사관 주도의 <인천화교 역사·문화자산 전문가 회의>를 구성 하여 운영

- 새롭게 발굴되는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집성과 보관 및 활용과 관련하여 화교협회, 관련 학술단체, 인천시청, 중구청, 시립박물관 등 공공부문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 논의의 장으로 활용

❑ 기대효과

❍ 파편·산재되어 있는 화교 역사·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

❍ 화교 역사문화 자산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의 틀 마련

53) 인천화교역사관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화교 역사관 전시 유물의 수준을 지적하고, 화교들의 참여 유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있기도 하였음. 관련 보도 내용은 다음을 참고.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12/dh20141218104053137890.htm:검색일 2016-10-10)

4 인천 화교 역사문화자산 활용을 위한 협력기제 마련

❑ 현상 및 문제제기

❍ 미미한 인천화교사회 주체 역량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제한

❍ 인천차이나타운의 과도한 상업화와 역사문화 자산 가치 활용 미흡

❑ 정책 제안

❍ 점차 소실되어 가는 화교 역사·문화자산의 발굴과 유지·보존 등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력을 일구어 낼 기제 마련

❍ 협력기제의 매개로서 가칭 <인천화교역사·문화자산발전기금> 조성

-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조항을 참고하여 인천 지역의 화교 역사와 문화자산 발굴·유지·활용을 위한 민관 공동 출자의 기금을 조성
- 기금재원을 인천시와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천 화교협회, 인천차이나타운상가번영회 등 화교 유관 단체와 개항장 일원의 상인, 그리고 중국대륙 및 타이완의 정부, 해외화교단체 등의 모금 등으로 다각화

❍ 기금 운영과 관련 사업 기획·추진을 통해 민관협력 기제를 점진적으로 구축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무국 설치와 운영을 통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기금 운영과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인천화교역사문화재단> 수립을 장기과제로 설정

❑ 기대효과

❍ 화교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증대

❍ 화교문화자산의 발굴·보존·활용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작용

5 인천-산둥 화교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현상 및 문제제기

- ❍ 인천화교는 대부분 산둥지역 출신의 북방계로서 국제화교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광둥 등 남방 출신 화교와 언어·문화적 이질감을 가짐[54)]
- ❍ 이 같은 인천화교 출신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화교네트워크 참여 및 화교자본 투자 유인을 위한 기제 마련 필요

❑ 정책 제안

- ❍ 산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천화교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남아화교네크워크와 다른 산둥화교네트워크에 선도적으로 참여
- ❍ 인천광역시와 중국 산둥성 간의 우호결연 관계에 기초하여 인천-산둥 화교네크워크 수립 지원
  - 산둥화교 네트워크는 산둥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산둥성 정치협상회의 산하 단체인 산둥성 귀국화교연합회(山东省归国华侨联合会)와 인천화교협회간 연계망 구축 지원
- ❍ 인천시- 산둥성 간 화교 연계망에 바탕으로 두고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 지원으로 가칭<황해권 세계화교대회> 개최

❑ 기대효과

- ❍ 인천화교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인천화교의 경제적 가치를 통해 글로벌비즈니스 기반 마련
- ❍ 인천 화교네크워크 확대와 역사문화 자산 활용의 기회 창출

54) 전 세계화교네크워크는 교역의 촉진이라는 실용적인 동기에서 출발해 종족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방화교와 남방화교 간의 언어상의 괴리는 한국 화교사회의 침체와 고립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임. 관련 논의는 양필승·이정희(2004:14) 참고. 강영문(2015:75)는 동남아 화교 인적네트워크의 핵심은 방언에 있다고 봄. 즉, 특정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한 직업도 갖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봄.

참고문헌

강영문(2015),『동남아화교비즈니스』, 전남대학교출판부.

권기영·이정희 편(2015),『인천, 대륙의 문화를 탐하다』, 학고방.

김성도(2013),『건축유산의 보존과 활용, 근현대문화재』,도서출판 고려.

김수한(2009),“한국 차이나타운의 지역 명소화 전략 연구-인천시 중화가를 중심으로”,『중국과 중국학』.10.

김창수(2016),“인천 도시가치자원 현황과 자원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미발간자료)

김창수(2010),“인천 대불호텔·중화루의 변천사 자료연구”,『인천학 연구』.13.

박경태(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후마니타스.

박상순(2001),『재한중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연구: 대만계중국인을 중심으로』,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현규(2009),“인천화교 의선당의 모습과 민간신앙 조사”,『역사민속학』.29.

손덕순 구술·송승석 채록((2012),『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 인천화교 손덕준의 가족이야기』, 한국학술정보

송승석·이정희(2015),『인천에 잠든 중국인들-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학고방.

신성희(2009),『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인천발전연구원.

신성희(2008),『인천시 문화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근대시기 문화자원 밀집지역을 사례로』,인천발전연구원.

양필승·이정희(2004),『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이덕훈(2004), 『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 한남대학교출판부.

이옥련(2013),“근대 개항도시의 화교사회와 동아시아 해상네트워크-인천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김수한 외, 『황해에서의 초국경 협력과 평화-한중일 역사』 문화교류와 국가전략』, 인천발전연구원.

이옥련(2008), 『인천 화교 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이현식(2001),『인천 차이나타운의 조성 방향』,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이창호(2011),“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적 조직과 역동성-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中央史論』.33.

이정희·송승석(2015),『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학고방.

인천문화재단(2015),『114년의 기억, 한국인천화교중산중소학 1902-2015』,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8), 『개항장 화교의 신앙과 민속』.

인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2007),『테마로 찾아보는 인천 개항장 역사기행』,인천광역시.

왕언메이(2013),송승석 역,『한국화교-냉전체제와 조국 의식』, 학고당.

윤하연(2016),“인천 개항장 관련 쇼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제언”, 인천발전연구원 시정이슈제안 제38호(2016-11)

장수현(2002),“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 』.19.

진유광 저, 이용재 역(2012),『중국인 디아스포라-한국화교이야기』, 한국학술정보.

정회옥 외(2015),“한국화교집단에 대한 분석:정체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23(1)

최영화 외(2016),『인천 도시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인천발전연구원. (미발간자료)

주한타이완대표처(http://web.roc-taiwan.org/kr/post/98.html검색일: 2016-08-0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통계연보

Social metrics(http://insight.some.co.kr/campaign.html)

한중문화관 (http://www.hanjung.g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 검색일: 2016-10-10)

중소기업청 (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4308906&tblKey=GMN 검색일 2016-10-11)

짜장면박물관 홈페이지(http://www.icjgss.or.kr/jajangmyeon/ 검색일:2016-10-04)

한국문화재단문화유산정보(https://www.chf.or.kr/c2/sub2_2.jsp?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rdType=R&bbIdx=101449 검색일: 2016-9-30)

인천박물관 홈페이지 및 인천시블로그(http://incheonblog.kr/2293(검색일: 2016-09-10)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12/dh20141218104053137890.htm:(검색일2016-10-10)

http://enews.incheon.go.kr/main/php(검색일: 2016-09-1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11202109976731004(검색

일 2016-09-08)

http://enews.incheon.go.kr/main/php/search_view_new.html?idx=11164(검색일: 2016-10-10)

2016 기획연구과제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발 행 인 남 기 명
발 행 일 2016년 11월
발 행 처 인천발전연구원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 260-2600
FAX 032) 260-2629
http://www.idi.re.kr

인 쇄 소 청송출판인쇄사 (032-883-4437)

ⓒ 인천발전연구원 2016

ISBN 978-89-5678-603-2 933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